

(인천상공회의소, 중고차 수출조합 특강자료)

국내외 자동차 산업 현황과 중고차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020년 7월 30일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사)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 대표

(사)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사)한국이륜차운전자협회 회장

(사)미래전기차산업기술연구조합 회장

한국중고차협회 회장

한국중고차매매산업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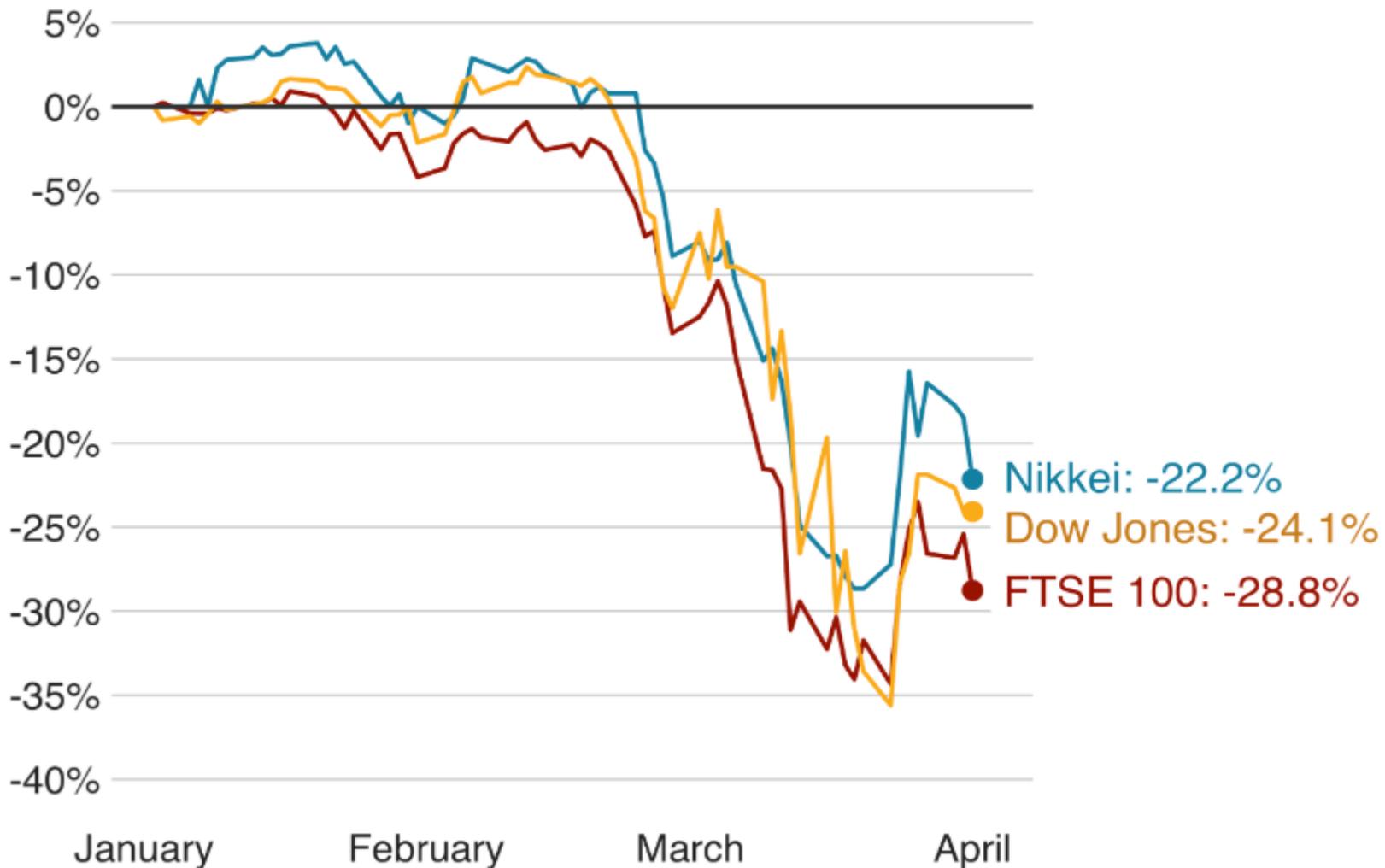
<목 차>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시장환경은?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동차 시장환경은?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종의 흥망성쇠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체적인 유망직종
5. 전기차, 수소차 활성화는 계획대로 가는가?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차 생태계 전략
7. 미래차에 대한 고민은?
8. 국내 중고차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은?
9. 선진형 진단평가에 위한 정부의 역할
10. 수출 중고차산업의 현황과 가능성
11.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선진화 방안
12.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려사항과 준비
13. 예상되는 중고차 시장 가능성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은?(1)

- 국내외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노사분규 가능성 등
- 비대면 비접촉 특성 보편화, 언택트 방식의 확산
- 언택트 방식에 따른 기업 부침 격렬 예상
- 공중보건, 의료, 유전자 관련 직종 급부상
- 2~3년간 글로벌 경제 최악으로 예상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 생활화
- SNS 등 온라인 특성, 인터넷, 홈쇼핑 등의 활성화
- 글로벌 경제의 둔화와 자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강화. 글로벌 소싱의 고민 등
- 공유모델과 소유모델의 충돌 심화, 소유모델의 승리?
-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정상화 가능성 지연
- 국내 시장은 여름부터 시장 활성화 본격화 예상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라!**

The impact of coronavirus on stock markets since the start of the outbreak



Source: Bloomberg, 01 April 2020, 09:00 GMT

BBC

<https://www.bbc.com/news/business-51706225>

〈위기 전후의 한국경제 주요 지표 추이〉

〈위기 전후의 한국의 GDP 갭〉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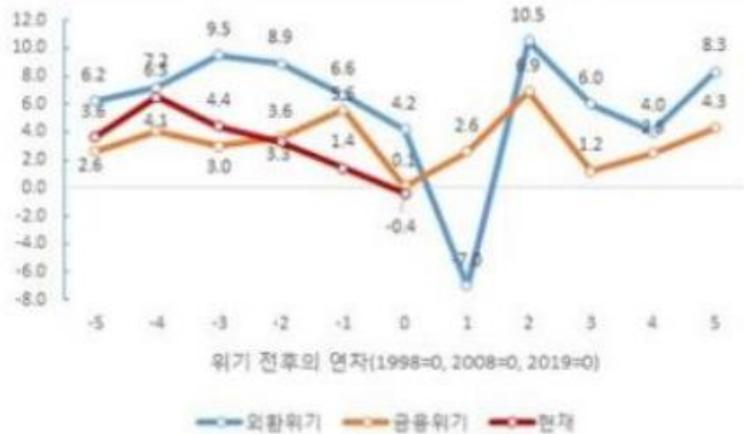
자료: OECD Data

〈위기 전후의 한국의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위기 전후의 한국의 총국내소득 증가율〉(단위: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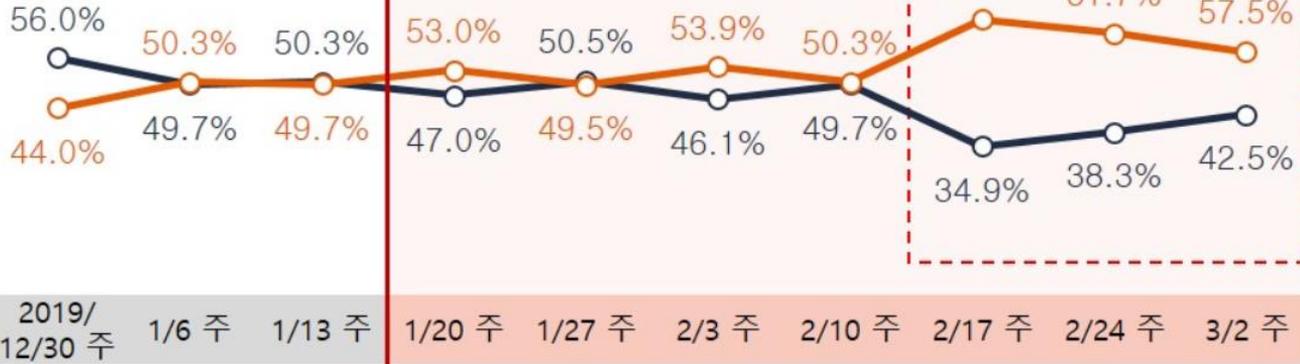
〈위기 전후의 한국의 총투자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오프라인 vs 온라인 점유율 변화

○ 오프라인
○ 온라인



전년 대비 오프라인 vs 온라인 성장률 변화

■ 오프라인
■ 온라인



- 채널 : 가전전문점(혼매점),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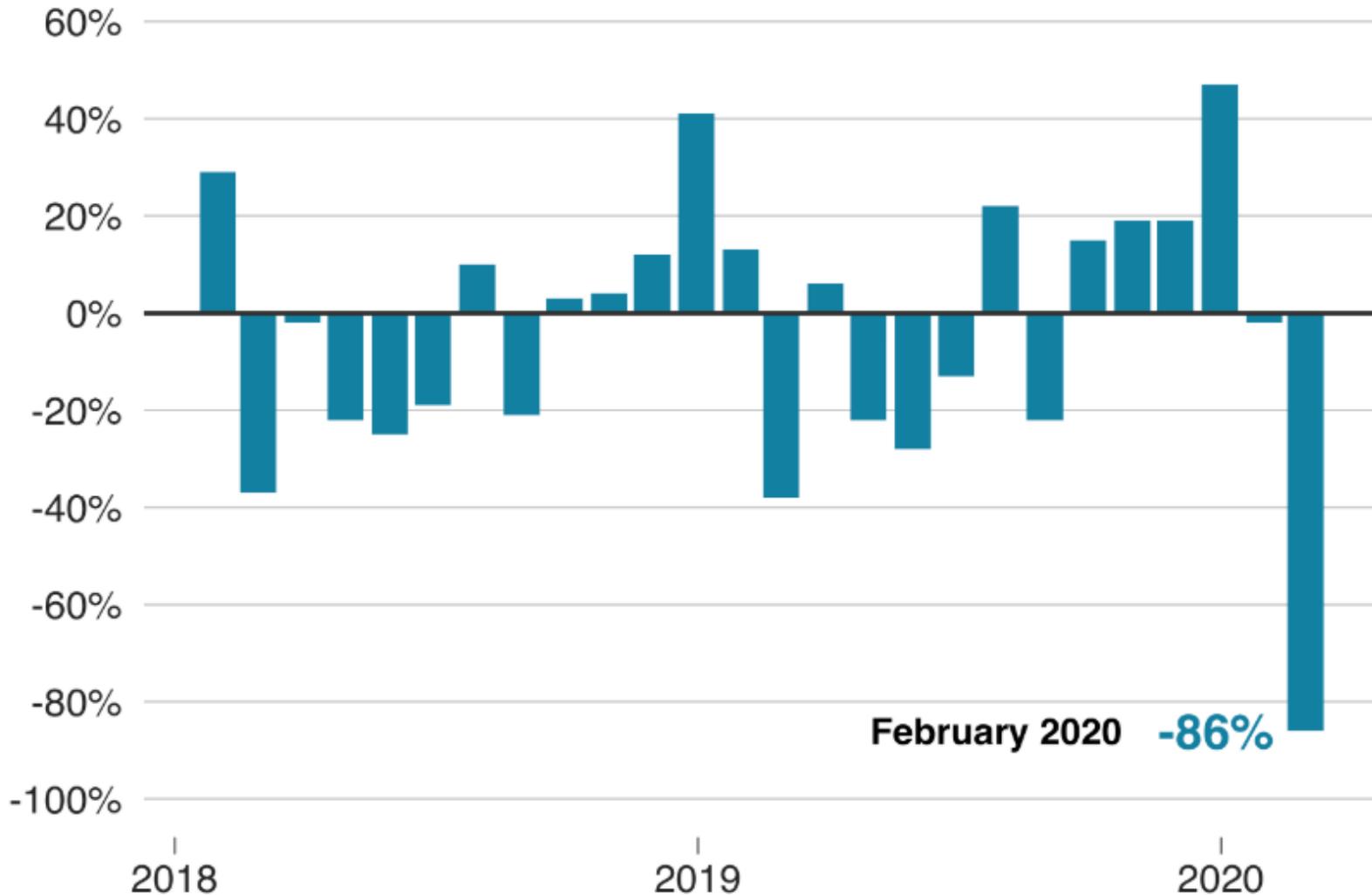
- 품목 : 공기청정기, 전기/가스레인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노트북, TV, 건조기, 진공청소기, 세탁기

*자료 : GfK Korea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은?(2)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민낯 노출로 인한 한계
- 세계 방역 모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기대
- 기존 사업모델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사업 모델의 부각
- 글로벌 소싱 구조가 아닌 자국 지역 활성화로 재편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정보 입수가 핵심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트렌드 급변
- 해외보다 국내 모델의 표준화 가능성 증대
- 세계 역사는 트럼프 이전과 이후 모델로 구분!
- 현재 세계 역사는 비포 코로나(BC)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AC) 시대로 구분되어 변신 중
- 국제 공조의 가능성 증대와 더불어 자국 위주로 변신
- 미래 세계는 변종 바이러스 공습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

Car sales in China have fallen sharply



Source: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 27 March 2020, 13:00 GMT

BBC

Oil price rallies

Brent crude, US dollars per barrel



Source: Bloomberg, 02 April 2020, 09:30 GMT

BBC

<https://www.bbc.com/news/business-51706225>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동차 시장 환경은?(1)

- 저유가와 코로나 퇴치 문제 부각 중, 친환경화는?
- 코로나19 문제로 자차 권장은 공유보다 소유를 활성화
- 코로나19 문제, 타다 모델 퇴출,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국내 공유모델은 탄생 불가능?
- 진정 국면의 국내 시장 활성화가 가장 핵심 과제
- 글로벌 시장 최악으로 인한 해외 시장 활성화는 당분간 불가능하여 국내 활성화로 유지!
- 해외 자동차 공장 생산 중지 반복 중, 내수가 유일통로?
- 국내 신차 출시 활성화와 인기 집중으로 가능성 증대
- 비대면 특성을 강조한 온라인과 홈쇼핑 등 마케팅 전략의 강화 필수
-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 아직은 하이브리드차가 최고 인기?

자동화 단계별 자율주행 분류체계



자료:미국자동차공학회

타다금지법과 배치되는 자율주행차법

	자율주행차법	타다금지법
시행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올 5월 시행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9월 시행 (예정)
유상 운송	-자율주행차 활용 여객유상 운송 등 사업 허용 -사업용 차량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일 경우 임대 유상 운송 가능	-택시·버스 등 운송사업자에 한정해 여객 유상 운송 가능 -사업용 차량 아닌 렌터카 기반 여객 유상 운송 불가
로보택시	합법	불법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동차 시장 환경은?(2)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구가 깨끗해졌다.
-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대책은?
- 내수 신차 시장 200만대 달성으로 국내 시장부터 활성화!
- 쌍용차 모기업 투자 철회로 생존 가능성 최악!
- 아직 마이너 2사도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신차 부족
- 글로벌 부품 소싱이 문제로 부각 중!
- 언택트를 강조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영업 마인드 부각 중! 홈쇼핑 등 비대면 전략을 극대화하라!
- 코로나19 부각으로 도리어 자동차에 대한 관심 집중?
- 글로벌 소싱 퇴각으로 결국 로컬라이제이션이 주도?
- 친환경, 자율주행, 공유모델의 융합화는 코로나19 부각으로 늦추어 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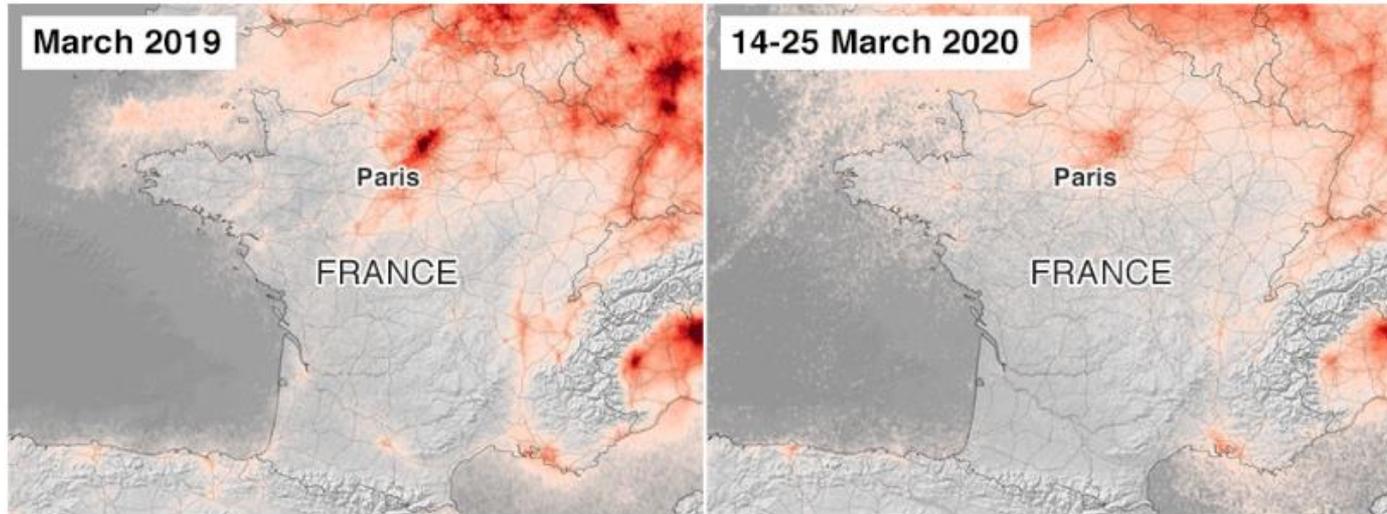
Satellite images show pollution clear amid lockdown

Nitrogen dioxide levels in the lower atmosp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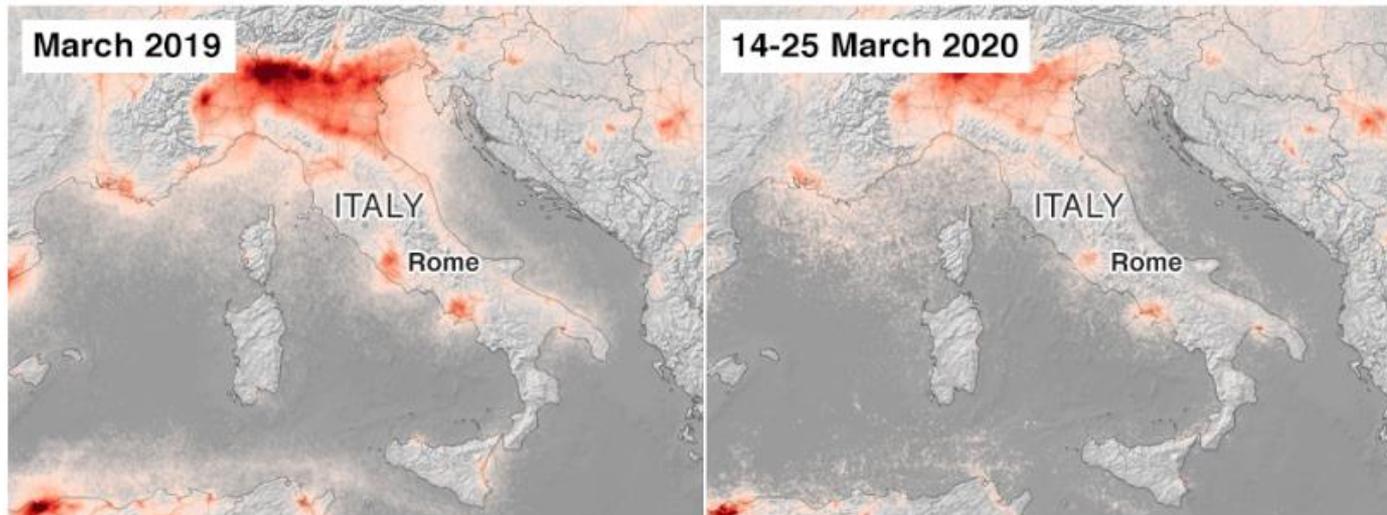
Density of Nitrogen dioxide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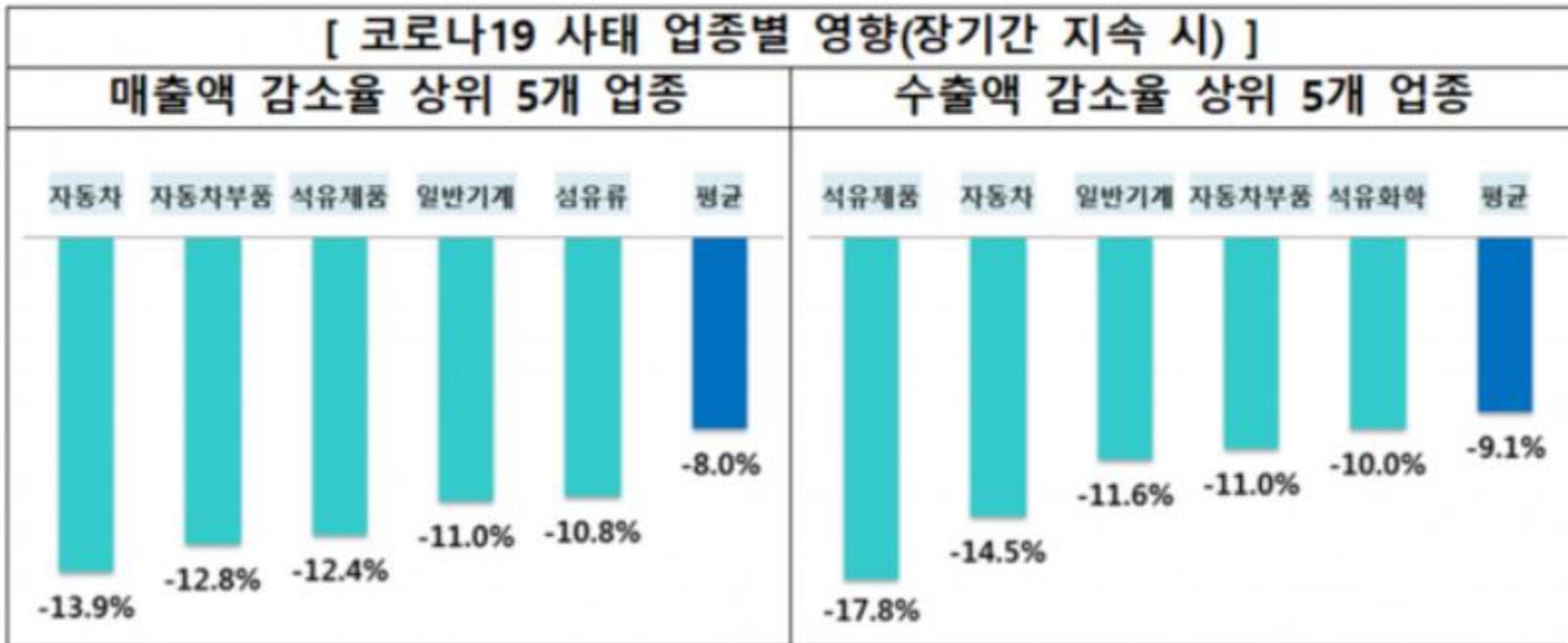


Italy



(n=152)

[코로나19 사태 업종별 영향(장기간 지속 시)]



10월 개정된 인도네시아 차량별 특별소비세 부과 조건

※연비조건과 CO2배출조건 중 1개만 성립하면 됨

	세율(%)	연비 조건(리터당 km)	CO2 배출 조건(km당 g)
내연기관	15	15.4 초과	150 미만
	20	11.5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200 미만
	25	9.3 초과 11.5 이하	200 이상 250 미만
	40	9.3 이하	250 이상
하이브리드	2	23 초과	100 미만
	5	18.4 초과 23 이하	100 이상 125 미만
	8	15.5 초과 18.4 이하	125 이상 150 미만
전기차	0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료: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종의 흥망성쇠

- 공중 방역, 의료, 유전자 관련 직종 부각!
- 관광 업종, 국가간 여객 운송업종(항공, 크루즈 퇴출 중!)
- 퀵 서비스, 배달 업종 부각!
- 홈 쇼핑, 온라인 등 언택트 업종 인기 상승
- 5G,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꼭지들의 중요성 더욱 강조
- 비접촉 특성이 강조된 공유모델보다 소유모델이 부각
- 물류 택배 업종은 부각되나 여객 운송은 퇴각
-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업종과 이를 구현하는 노트북 등 관련 전자 업종도 부흥기 등
- 휴대폰과 자동차의 연동성을 강조하는 스마트 기능 관련 업종 부각 가능성 증대
- 온라인 교육과 이와 연계된 AR, VR 등 관련 업종도 부각



**5大 자동차 부품
업체의 생존 전략**

콘티넨탈

자동차 플랫폼 '큐브'
개발

보쉬

자율주행 시 카메라
시스템 개발

덴소

아마존 협업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마그나

자율주행 차량 생산
개발

ZF

차체·모터·변속기 일체화
플랫폼 'mStars'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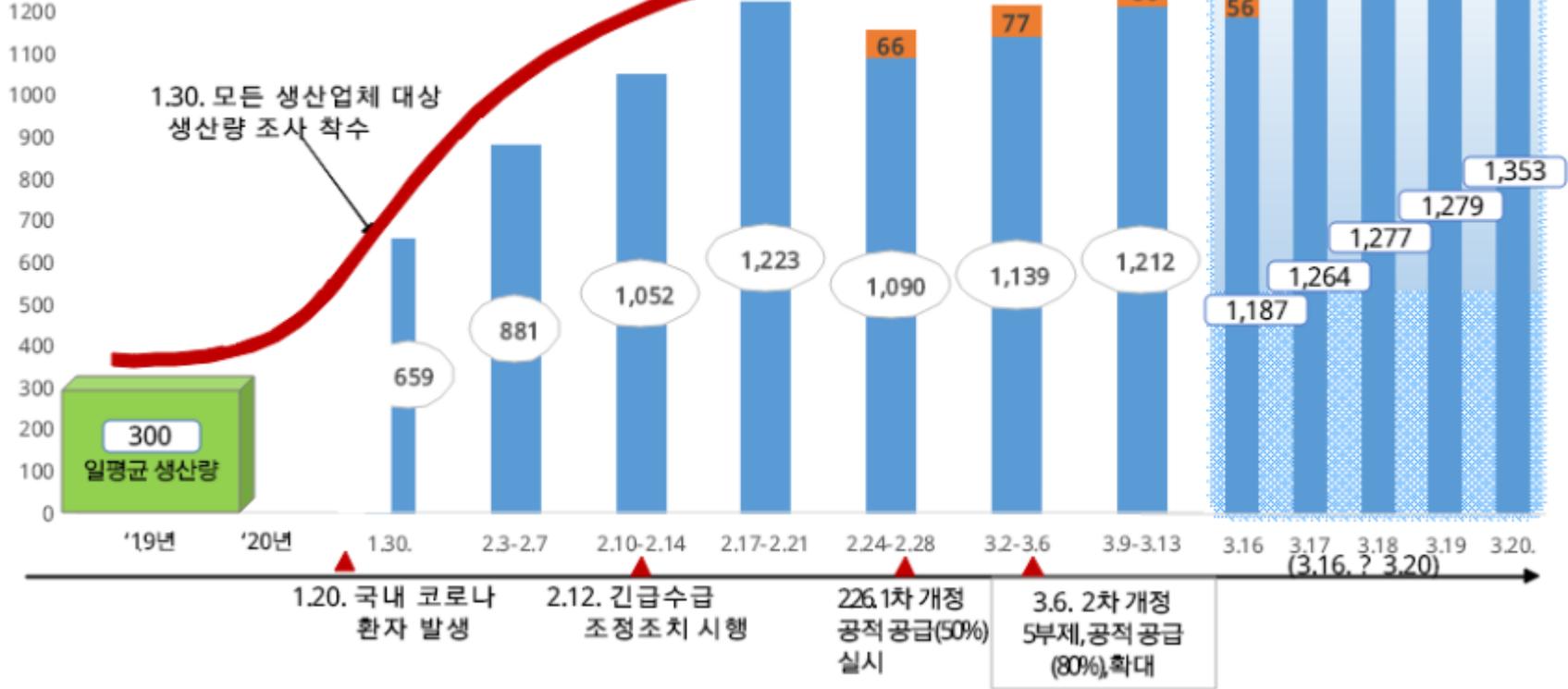
자료=각 사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체적인 유망직종은?

- 마스크, 세정제, 주사기, 휴지, 마스크 재료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MB) 필터 제조 업체 등 그러나 과잉경쟁
- 유전자 관련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업계?
- 방역 물품 제조업계
- 비상용 저가 산소호흡기 등 가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 제품 개발 생산업계
- 온라인 쌍방 교육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 하드웨어 회사
- 노트북 등 소형 보급형 경제성이 가미된 컴퓨터관련
- 유튜브 등을 활용한 특화된 차별성 있는 언택트 사업
- 차량 실내 미세먼지 차단이나 바이러스 방역 등 관련 용품 사업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보편화를 구현하는 관련 사업 등
- **코로나 영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부침이 가속화된다.**

(단위 : 만장)

■ 보건용 ■ 수술용



<http://m.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37>

5. 전기차, 수소차 활성화는 계획대로 가는가?

- 초기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 하락, 최근 신차 출시로 다시 상승 중, 친환경차 판매도 함께 상승
- 초저유가로 인한 국제적 환경 규제 완화 가능성은?
- 수개월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구 환경 최상!
- 올 상반기는 개인 활동 봉쇄로 인한 차량 운행 최소화
로 인한 지구 환경 개선 예상
- 올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 약 65,000대 정도, 이 중 테슬라 모델3가 과반 점유 가능성, 연말 모델Y가 본격화
- 수소차도 상당수 보급 예상. 그러나 충전소 부족으로 상대적 고민은 누적
- 정부의 양적 팽창 시행으로 질적인 수준관리가 부족
- 한전의 급속충전 전기비 상승과 기본요금 부과로 인한 부작용 심각. 환경부의 충전기 보급과 역행
- 한국형 선진모델 보급이 중요. 비즈니스 모델 핵심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3위로

단위: %, 2019년은 11월 말 누적



자료: IHS마켓·EV세일즈

① 중앙일보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차 생태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도 전기차와 사촌 관계인 자율주행차도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본격 상승 예상
- 미래를 대변하는 CASE 혁명 중 전기차가 중심에 위치
- 충전시설도 일원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형 보급 확산
- 올해 7월부터 한전의 충전 전기비 인상 정책으로 급속 충전 비용 상승, 기본요금도 50% 부과 시작으로 역행
- 전기차 보급은 향후 양적 팽창 제도 중심에서 질적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핵심과제
-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균형 보급이 중요.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는 측면
- 수소연료전지차는 궁극의 차량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장 일자리나 활성화가 어려운 모델. 이유는?
- 코로나19로 인한 생태계 급변, 주도권을 위한 분석중요

7. 미래차에 대한 고민은(1)?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본격 대두 및 급격한 보급으로 인한 경차육 가능성 고민
- 미래의 화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및 이를 활용한 모빌리티 셰어링
- 과거의 글로벌 제작사 중심에서 신흥 글로벌 기업으로 축의 이동 가능성 증대
-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융합적 제품으로 발전 중
- 센서 등 고부가가치 기업,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회사, GAFA 등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도?
- 내연기관차, 얼마나 갈 것인가?
- 기존 부품사의 약 40%는 10년 동안에 도태가능성 증대
- 앞으로의 융합적인 성공 관건은 누가 많이 섞는가와 적과의 동침이 기본으로 작동

삼성의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전면·측면·후면 뷰 카메라
▶ 이미지 센서

전면부 감지 운전자 모니터링
▶ 신경망 프로세싱 유닛 (NPU) 이미지 센서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 프로세서 신경망 프로세싱 유닛(NPU) 보안 집적회로 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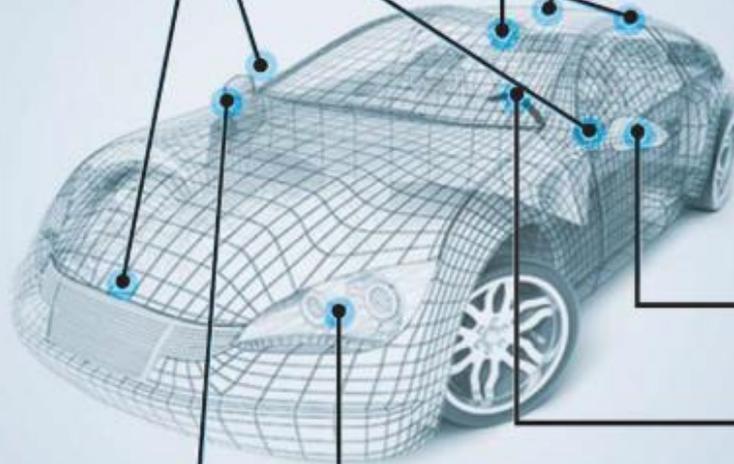
차량용 반도체 주요 공급 기업

유럽

▶ NXP(네덜란드), 인피니언(독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프랑스)

아시아

▶ 도시바·덴소·후지쓰·NEC(일본),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



전자열쇠
▶ 보안 집적회로

사이드미러
▶ 이미지 센서

핸들
▶ 홍채·지문 인식 센서

조명
▶ LED 패키지와 모듈

인포테인먼트

▶ 프로세서·디스플레이 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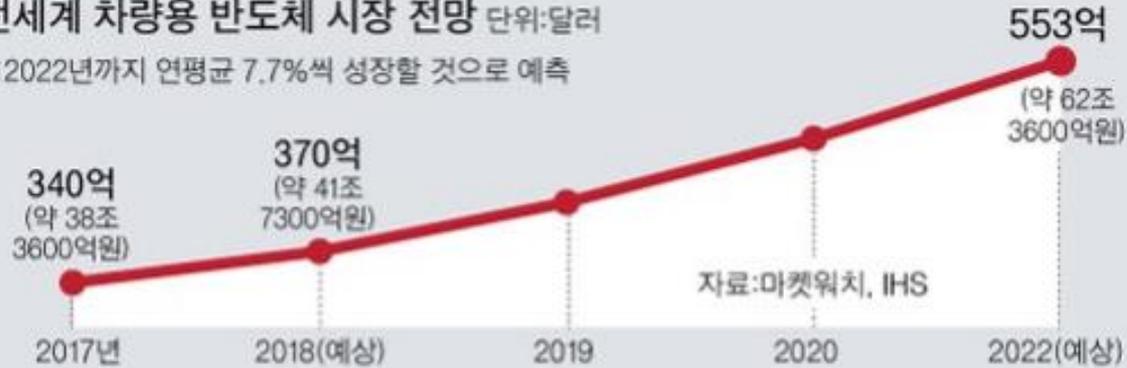
자동차 내 반도체 수요처 *자료=IHS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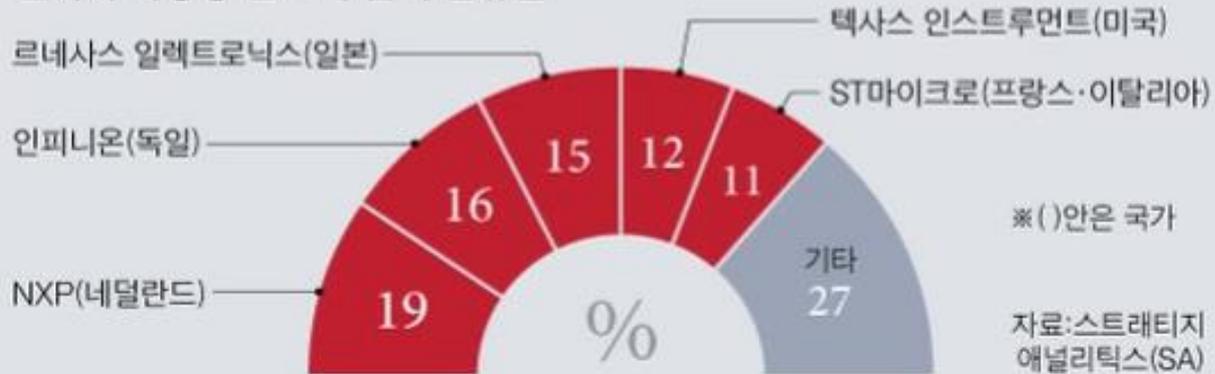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0/645207/>

전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달러

※2022년까지 연평균 7.7%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



전세계 차량용 반도체 업체 점유율



<https://news.join.com/article/23047146>

7. 미래차에 대한 고민은(2)?

- 내연기관차 부품수 30,000개에서 전기차는 15,000 ~ 17,000개 정도, 수소차는 약 23,000개 정도
-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약 13,000개 사멸, 새시 부품과 전장 부품 일부 사멸 등 고민 가속
- 우리는 아직 공유 개념이 희박하다. 관련법 없음
- 기존의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아직 주도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은 약 80% 수준(약 3~4년 격차)
- 미래차를 대변하는 대표 용어 “CASE”
-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어도 능동식 안전장치, 커넥티드, 풀 파킹 시스템, 저속형 자율주행, 물류 혁신 등 주도
- 자동차 비포 마켓 보다는 애프터 마켓의 변화가 큼
-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빨리 변화한다.
- **코로나19가 더욱 변화 가속도를 높인다.**

줄어드는 자동차 1차 협력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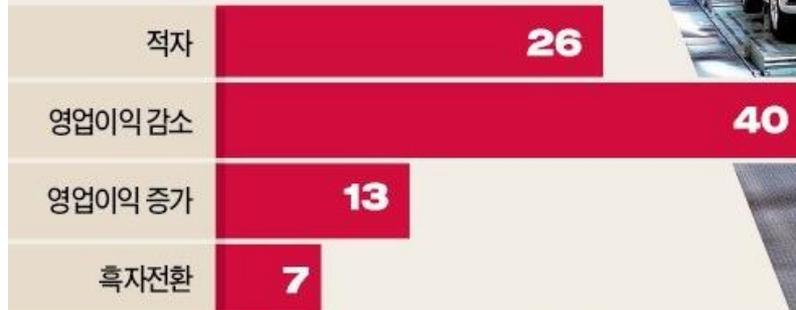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수익성 뚝 떨어진 자동차 부품회사들

(단위: 개)



※1분기 86개 자동차 부품 상장사, 전 분기 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0289481>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CASE' 전략

현대차		도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와 차량 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 적용 등 협업 · 2022년 초 커넥티드카 가입자 1000만 명 확보 	<p>C connected 연결(커넥티드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소닉과 차량 및 주택 연결 위한 합작사 설립 · 2020년 양산 차량 90%에 통신 기능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모비스 통해 KT, 안덱스(러시아)와 차량용 5세대(5G) 통신 기술 개발 협업 · 2021년 자율주행 로봇 택시 출시 	<p>A autonomous 자율주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뱅크와 자율주행 서비스 회사인 모넷 테크놀로지 설립 · 소프트뱅크 등과 우버(미국) 자율주행 자회사 ATG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랩(싱가포르), 올라(인도) 등 글로벌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투자 · 네이버 출신 경영진이 모인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코드42 투자 	<p>S shared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버, 그랩 등 글로벌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투자 · 일본 최대 택시 호출 서비스 저팬택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양산 차량 적용 · 2024년 친환경차 모델 44개, 판매량 167만 대 목표 	<p>E electric 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모든 양산 차량에 전기 구동 방식 채택 ·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90% 감축 목표

자료: 각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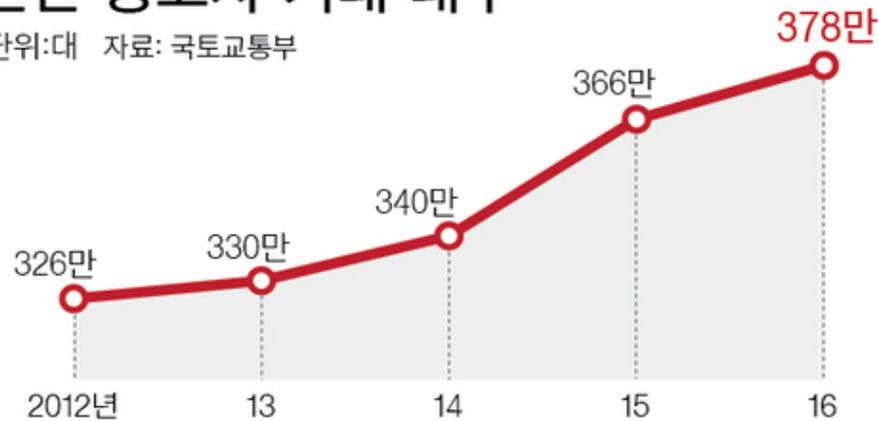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09/95459182/1>

8. 국내 중고차 시장의 현재 및 문제점은?

- 연간 중고차 거래 약 380만대, 약 30조원의 매머드 시장으로 도약, 실질적인 B to C 거래는 약 270~280만대
- 작년 수출중고차 약 47만대, 수출 중고부품도 활성화되어 있으나 낮은 부가가치와 관리 시스템
- 아직 허위 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와 낮은 품질보증제 이행 등 사회적 인식이 낮음
- 지난 10여년간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노력하여 효과는 있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
-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중심이면서 전체를 흔드는 요소이나 자정기능이나 정부의 개선 노력이 매우 약함
-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고 정보 획득 등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없는 실정
- 미래를 위한 중고차 시장의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

단위:대 자료: 국토교통부



중고차 거래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건



구분	2018년(금액:천불)			2017년			2016년			2015년		
	수출금액	대수	대당	수출금액	대수	대당	수출금액	대수	대당	수출금액	대수	대당
1월	70,388	21,749	3.2	73,709	21,831	3.4	72,632	17,985	4.0	70,285	15,919	4.4
2월	65,142	17,831	3.7	79,416	21,795	3.6	72,805	18,600	3.9	60,976	12,966	4.7
3월	92,169	35,824	2.6	88,273	24,463	3.6	95,990	22,411	4.3	85,058	19,856	4.3
4월	85,525	29,768	2.9	80,639	20,791	3.9	91,481	20,914	4.4	96,240	18,724	5.1
5월	101,016	32,992	3.1	75,687	21,196	3.6	88,475	20,386	4.3	74,442	15,975	4.7
6월	79,703	28,328	2.8	85,500	23,353	3.7	84,568	18,301	4.6	87,225	18,105	4.8
7월	95,825	33,854	2.8	73,458	21,758	3.4	69,025	15,433	4.5	89,416	17,969	5.0
8월	98,494	31,374	3.1	88,309	26,551	3.3	73,310	17,778	4.1	67,077	14,352	4.7
9월	77,842	26,039	3.0	93,436	27,130	3.4	67,833	17,046	4.0	81,658	17,836	4.6
10월	99,585	32,298	3.1	66,918	20,770	3.2	76,383	19,353	3.9	84,081	19,003	4.4
11월	101,903	33,178	3.1	102,260	32,754	3.1	83,571	21,750	3.8	86,604	18,246	4.7
12월	114,181	36,939	3.1	78,723	25,509	3.1	76,199	21,265	3.6	94,901	22,993	4.1
총누계	1,081,773	360,174	3.0	986,328	287,901	3.4	952,272	231,222	4.1	977,963	211,944	4.6
월평균	90,148	30,015	3.0	82,194	23,992	3.4	79,356	19,269	4.1	81,497	17,662	4.6

※ 관세청 통관기준 / 금액단위 : 1,000 USD / FOB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dshin7&logNo=221446885785&parentCategoryNo=&categoryNo=16&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9. 선진형 진단평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1)

1. 10여년간 유일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 역할
2. 가장 낙후된 중고차 시장에서의 품질보증제 개념
3. 1개월, 2천Km의 품질보증의 의미
4. 사업자 거래에 한정된 역할과 당사자 거래의 위험성 제거 노력 필요
5. 법정 기관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정부 역할 개선의지가 핵심
6. 향후 개선을 통한 안정된 자리매김에 기대
7. 세계 유일의 정부 차원의 중고차 품질보증제
8. 자동차 진단평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9. 소비자 중심의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마지노선
10. 최근 중고차 보증보험제 의무화에 대한 역할과 의미는?

9. 선진형 진단평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2)

1. 법정 성능점검기관의 원 스트라이크 정책 시행 철저 등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시장 파이를 늘리는 노력이 핵심
2. 매매업자와 성능점검기관과의 완전한 단절
3. 허위 미끼매물 문제에 대한 진단평가 역할 강조
4. 친환경차 진단평가 등 다양한 진단평가 시스템 마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5. 당사자 거래에 대한 진단평가 시스템의 역할
6. 대국민 긍정적 홍보 마련 및 중요성 강조 캠페인
7. 개선된 성능점검제도에 대한 의견 수시 개선
8. 중고차 단지에 대한 철저한 부조리 수시 감독
9. 소비자 중심의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노력
10.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진단평가방법 도출과 수익성 모델 창출 필수

10. 수출 중고차산업의 현황 및 가능성 고찰(1)

1. 연간 중고차 수출 약 40여만대의 시장과 중고 부품 동반 진출의 효과가 있으나 수십 년간 후진적 영세적 시스템 고착
2. 인천시 항만을 중심으로 수출 중고차 시장이 발달
3. 컨테이너 사무실 및 중고차 평가 미비 등 영세적 시스템
4. 국내의 현대식 중고차 시스템과 매매문화 선진화 노력과는 별개로 단절되고 사각화된 영역으로 존재
5. 중앙 담당부서의 경우도 국내는 국토교통부이고 수출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이나 해당 영역에 대한 인지 전무
6. 지난 정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분야를 산업부에 이관하면서 더욱 수출 중고차 분야는 사각지대로 전락
7. 약 6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시적으로 수출중고차 산업의 중요성을 필자가 주지한 경우가 있음
8. 재작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대통령에게 주사업으로 보고, 진행

중고차 수출단지 유치경쟁 '전환점' 맞나...군산항 '청신호'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20 | 댓글 0



기재부 사전 적격성 재심의 통과 '기사회생'
재정지원 보조율 지방비 상향, 운영시기 조정
인천·평택항 '지지부진' 속 군산 약진 '대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수출단지 유치 경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전 적격성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파란불이 켜지면서다.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93>

10. 수출 중고차산업의 현황 및 가능성 고찰(2)

1. 산업통상자원부의 시범 모델로 군산항 지역을 수출 중고차 단지로 지정하여 진행 중
2. 현재 국내 중고차 산업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약 3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수출중고차 산업은 약 1조원 시장 정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임
3. 현재 수출되는 중고차 가격도 일본 중고차 대비 과반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낮고 수출물량도 아직은 적은 상황임
4.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군산시의 수출 중고차 산업화 노력과는 별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수출중고차 등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회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
5. 국내 중고차 산업의 노하우를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이식하여 대표적인 산업화로 일굴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리라 확신
6. 수출 중고차 역량은 인천을 기반으로 평택, 군산이 대두

인천항 '중고차 수출' 군산에 빼앗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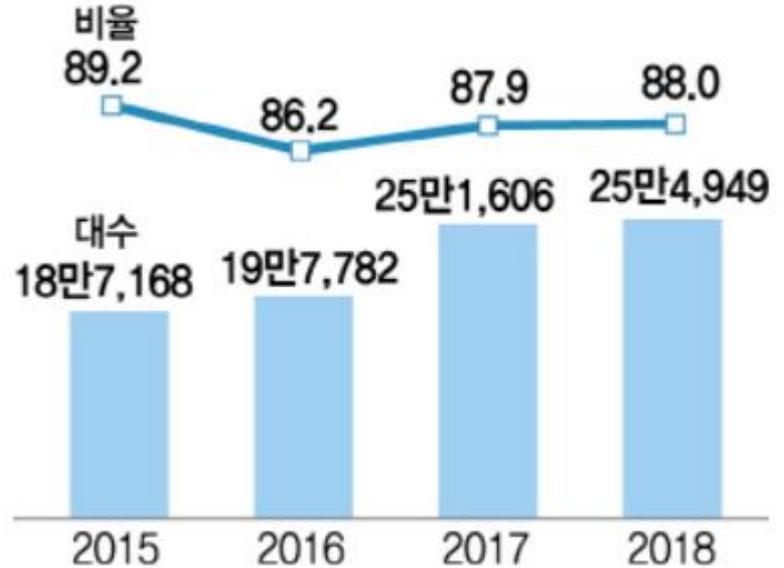
국내 중고차 수출물량 90% 처리
 車물류클러스터도 추진 중인데
 정부 "내년부터 군산 수출단지 조성"
 "항만 일자리 줄고 세수 등 타격"
 업계 '인천 흥대론' 확산 조짐

장현일기자 | 2018-12-18 17:26:34 | 전국



연간 25만대에 이르는 인천항 수출용 중고자동차들이 인천항 내항 야적장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동량 (단위: 대, %)



※비율은 전국 수출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인천항만공사

11.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선진화 방안(1)

1. 전체적인 수출 중고차 비즈니스 플랫폼 구성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2. 원스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선진형 현대화 단지와의 이력 구성하는 매매사원의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루는 시장
3. 중고차 진단평가 시스템과 진단평가사 전문가 양성 교육과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4. 수출 중고차 관리 조직 구성과 산학연관 자문단을 통한 업그레이드 노력과 선진화 노력 가속
5. 해외 중고차 시장 현황 및 분석과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원 체제 가동과 이를 총괄할 협회 결성 필수
6. 국내 중고차 시장과의 연동성을 중심으로 중고차 매입구조 연계, 허위 미끼 매물 등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는 자정적 기능 부여
7. 신차조직과 중고차조직과의 연동성과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 기대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청신호'

전북CBS 김진경 기자 ☞ | 2019-08-19 10:52



뉴스듣기

댓글 0

공유 0

가

📄

기재부 국가보조금 3차 사전 적격성심사 통과

당초 내년도 상반기 기본·실시설계용역과 하반기 비즈니스센터 건설 계획을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준비단계로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시했다.

또 비즈니스센터 건설과 수출업체 입주단지 건설, 정비·튜닝·부품단지를 건설한 뒤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으나 2023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초 국비 보조율 60%(295억원)를 55%(275억원)로 조정하고 지방비 40%(200억원)도 45%(250억원)로 상향하도록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기재부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임해업무단지 23만1400여㎡ 부지에 중고차 중고 건설기계와 중고 농기계 등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을 취급하는 등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형 매매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매매와 수출, 전시, 유통, 튜닝 등의 기능을 수행할 거래소를 비롯해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전시장, 정비·튜닝센터, 부품공급센터 등이 들어선다.

11.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선진화 방안(2)

1.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지자체의 역할이 융합된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중고 전기차 활용 방안도 중요한 꼭지임
2.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로 중고 전기차 수출 등 부각
3. 중고 전기차 진단평가모델, 가격 산정모델 등 다양한 해결 과제가 필요하고 국내 중고차 모델과 연동하여 해결
4. 진단평가사 양성과 수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스템 절실한 과제
5. 최근 부각되는 정부 차원의 자동차 매매사 자격증과도 연계하여 대학 내에서 연계 프로그램이 요구됨
6. 결국 원 스톱의 현대화된 하드웨어도 필수적이지만 무엇보다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한 요소임
7. 중앙정부와 필수적으로 연계하는 지방조직의 중요성
8. 일자리 창출과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수출 중고차 산업의 활력소를 통하여 새로운 직업군 탄생의 역할도 기대

11.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선진화 방안(3)

1. 특히 군산시의 건설기계 관련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수출 건설기계 수출단지로 특화시키는 요소는 차별화 전략임
2. 현재 일반 중고차 활성화는 가능하나 건설기계는 국내의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만큼 특화단지로 군산을 적극 활용해야 함
3. 건설기계의 진단평가와 가격 산정모델의 선진화 구축도 필요하며, 전문가 양성도 일반 중고차와 연계하여 구축
4. 대부분 중고차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물류비는 불리하므로 수도권의 단지와 경쟁하기보다는 상생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이 중요함
5. 군산시는 일부 중고차 모델과 건설기계 특화모델 등을 중심으로 중남부권의 핵심모델로 구축 가능성 고민
6. 군산시 핵심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매입 구조 현실화와 원 스톱 서비스는 기본

12.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려사항과 준비

1.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구조적 변화로 인한 성능평가 방법 도출 및 가격 산정 모델 구축
2.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대변혁기를 대비한 미래 비즈니스 모델 변화
3. 기존 중고차 단순 수익 구조의 한계 및 단지 중심의 소사장제의 고민과 새로운 시장 창출의 고민
4. 대기업 및 중소기업 먹거리 구분의 모호성 증대 및 생존경쟁의 시대 도래
5. 철저한 소비자 중심의 먹거리 창출 및 품질보증제는 기본
6.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 도래 및 규모의 경제가 좌우하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
7. 기존 자동차 제작사 중심의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바뀌는 시대 도래와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혼돈하는 시대 도래

[2019 창간기획] 보호장벽 해제된 중고차 시장, 중소기업자 vs 대기업 승부 '초읽기'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0.22 | 댓글 0



연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로 판가름 날 듯
"지금이 기회" 국내 완성차·수입차, 틈새전략 집중
"시장 정상화" "생존권 위협"... "소비자 권익 최우선"

장기렌트

지각변동 기로에 선 시장...우려와 기대 '혼재'

중고차 매매업계가 우려하던 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애물로 여겨지던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일몰로 '제도의 공백'이 생기면서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 대기업이 눈앞에서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어서다.

자동차금융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의 중고차 시장 공략 강화 움직임도 업계의 위기감을 키우는 원인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자동차관리용 앱 '플카'를 선보이며 사업 확대를 구체화했다. 플카는 현재 중고차 매매 플랫폼으로 성장 중으로, 실적이 우수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인증 안심 매매 상사로 지정 관리하며 판매 신뢰도를 쌓고 있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이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인증중고차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13. 예상되는 중고차 시장 가능성(1)

1. 향후 실질적인 중고차 소비자 거래 350만대 달성 가능성
2.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를 중심으로 수출 중고차 100만대 달성 및 수출 중고부품 등 체계적 제도 마련 및 선진형 진단평가 시스템 적용
3. 단지별 특화요소 강조 및 차별화된 소비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필수적임
4. 선진형 현대식 하드웨어와 신뢰성 높은 체계화된 매매 사원이 조화를 이루는 선국형 중고차시장 구축, 후진국에 대한 중고차 고조 및 진단평가 시스템 수출 등
5. 구시대적 적폐 퇴출과 새로운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시대 시작
6.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차 시장 개편 및 적자생존의 시대 시작
7.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자정적 전문 인력의 확산 및 기존 중고차 시장의 내부적 변화 가속

13. 예상되는 중고차 시장 가능성(2)

1. 수출 중고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트플랜 필수
2. 새로 부각되는 평택시와 중고 건설기계 중심의 군산시 등을 통한 건전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
3. 코로나 장기간에 대비한 신뢰성 기반의 중고차 플랫폼 구성이 필수적임
4. 새로 구성되는 가칭 “한국 중고차 수출산업협회”의 역할이 핵심적인 필수조건임
5.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온택트’화
6.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언택트 방식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중고차 수출 플랫폼 구성 필수**

Q & A



유튜브 방송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오픈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